

일반인의 교정치료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에 대한 연구

이선영

삼육보건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orthodontic treatment knowledge and attitude among people in general

Sun-young Lee

Dept. of Dental Hygiene, Samyook Health College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nowledge of people in general about orthodontic treatment and their attitude to that by conducting a survey in a bi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ir incorrect awareness of orthodontics and on the development of clinical orthodontic treatment.

Methods and Result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89 people in general who resid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s for awareness of orthodontic treatment among the people in general by gender, the women knew better about orthodontic treatment than the men, and the gender gap was significant($p < 0.05$). 2. Concerning satisfaction with the shape and arrangement of the teeth by age, those who were in their 20s were most satisfied, and the teens were satisfied the least. There were significant gaps according to age ($p < 0.05$). 3. As a result of checking the degree of their inconvenience about the use of chewing teeth by age, the people who were in their 30s felt the most inconvenience, and the gap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as significant($p < 0.01$). 4. As a result of asking them whether they had an intention to receive orthodontic treatment, the women had a more intention to do that than the men($p < 0.001$). By age, the younger respondents had a more intention, and the gaps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ere significant($p < 0.001$). 5.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perception of the positives of orthodontics by gender, the women took a more positive view of it than the men, and their gap was significant($p < 0.01$).

Conclusions : When orthodontic treatment or orthodontic treatment counseling is provided to orthodontic treatment patients or people in general in the field of clinical dentistr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way patients and people in general look at orthodontic treatment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age and gender, and they should be informed of the positives of orthodontic treatment to step up the development of orthodontic treatment.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2;12(2):251-260)

Keywords : malocclusion, maxillofacial plastic surgery, orthodontic treatment, orthodontics, orthodontic patients
색인 : 교정치료, 교정환자, 부정교합, 악안면 성형수술, 치열교정

- ▶ 본 연구는 2012학년도 삼육보건대학 학술연구지원 사업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1.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은 자기만족의 단계를 넘어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나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¹⁾. 신체의 아름다움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²⁾, 외모가 사회적 성공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통념이 자리 잡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러한 성공의 조건에 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³⁾. 치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미에 대한 의식변화로 인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통신망의 발달, 매스미디어의 영향,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이 포화되면서 일반인들이 교정에 대해 쉽게 접하는 기회가 증가되었다⁴⁾. 과거 1980~1990년대에 비하여 꾸준히 교정치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외모의 향상과 정신·사회적·건강개선 목적으로 치과 교정에 내원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⁵⁾.

한편 Tweed⁶⁾는 교정치료를 안모의 평형과 조화, 치료 후의 치열 안정, 건강한 구강조직, 능률적인 저작기능이라 하였는데 교정치료의 주목적은 부정교합을 개선하여 정상 교합을 얻음으로써 형태와 기능적으로 우수한 교합을 형성하고 구강보건을 유지하여 생리적으로 건강한 구강조직과 함께 심미적으로도 우수하여 건강한 인간상을 얻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⁷⁾. 또한 교정치료는 저작기능과 발음을 개선하고 안모 및 입술주변부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므로 치열과 안모의 심미성을 개선하여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어⁸⁾ 사람들의 안모개선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일반인들의 교정에 대한 관심이 미적인 외모개선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정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개인의 조화로운 인간상과 치아관계의 다양성을 파악하여 치료계획을 잘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과열되고 있어 자칫 다양한 부

작용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치과의사의 진단에 의한 교정치료보다는 개인의 자신의 부정교합이나 심미적 문제로 교정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정치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9,10)}. 이는 향후 교정치료를 희망하는 이들이 자신의 부정교합을 인정하고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정치료에 대한 연구로는 교정치료시기, 교정치료 시 병원선택, 만족도, 부정교합 인식에 대한 연구들¹⁰⁻¹⁵⁾이 있으나, 일반인들의 교정치료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반영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인이 인지하는 본인 치아에 대한 만족도 및 교정치료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교정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임상영역에서의 교정치료 발전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동안 편의 표본 추출법에 의해 일부 서울·경기지역 10대 이상 남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다. 총 43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중 결과분석이 곤란한 설문지 46부를 제외하고 389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내용에 대한 설문문항은 이^{15,16)}, 안¹⁷⁾, 천¹⁸⁾, 이등¹⁹⁾의 연구도구를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객관적 문항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3문항, 교정치료 인지 1문항, 본인인지 치아상태 만족 관련 2문항, 교정치료의향 2문항, 교정치료의 긍·부정적 효과 17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정치료의 긍·부정적 효과 문항은 응답 수준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과 부정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 α 가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 0.72, 교정치료의 부정적 효과 0.70으로, 모두 0.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3. 연구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본인의 치아상태 만족도, 교정치료에 대한 지식수준과 태도 그리고 교정치료의 긍·부정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과 t-test(검증),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그리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389명으로 성별로는 여자가 54.2%로 남자 45.8%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결혼 여부별로는 미혼이 83.5%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7.0%로 가장 많았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78
	여	211
결혼 여부	기혼	64
	미혼	325
연령	10대	125
	20대	144
	30대	120
계	389	100.0

3.2. 교정치료 인지 정도

교정치료 인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2.47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교정치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결혼 여부별로는 미혼이 연령에서는 20대가 교정치료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나 두 항목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2).

3.3. 치아의 모양, 배열에 대한 만족 정도

본인의 치아의 모양, 배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3.11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치아의 모양, 배열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대보다 10대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표 3).

표 2. 교정치료 인지 정도

구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178	2.32	1.05	-2.59	0.010*
	여	211	2.60	1.08		
결혼 여부	기혼	64	2.36	1.10	-0.92	0.356
	미혼	325	2.50	1.07		
연령	10대	125	2.50	1.04	1.19	0.304
	20대	144	2.55	1.13		
	30대	120	2.35	1.05		
전체	389	2.47	1.08			

*by t-test or one-way ANOVA test at $p < .05$

표 3. 치아의 모양, 배열에 대한 만족 정도

구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178	3.20	1.53	0.126
	여	211	3.02		
결혼 여부	기혼	64	3.11	0.03	0.976
	미혼	325	3.10		
연령	10대	125	2.89	3.35	0.036*
	20대	144	3.22		
	30대	120	3.20		
전체	389	3.11	1.15		

*by t-test or one-way ANOVA test at *p<0.05

3.4. 저작 시 치아 사용 불편함 정도

저작 시 본인의 치아 사용에 대한 불편함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1.88로 성별로는 남자가,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저작 시 치아 사용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20대보다 30대가 저작 시 치아 사용에 대해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꼈고 연령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표 4>.

3.5. 교정치료 의향정도

3.5.1. 교정치료 의향 여부

교정치료 의향 여부를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여자가 교정치료를 받을 의향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결혼 여부 별로는 미혼이 교정치료를 받을 의향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정치료를 받을 의향이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표 5>.

3.5.2 교정치료 의향에 대한 이유

교정치료를 받고 싶은 의향에 대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일반인 52.8%가 ‘빼놓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고 싶어서’ 교정치료를 받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표 6>.

표 4. 저작 시 치아사용 불편함 정도

구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178	1.89	0.20	0.841
	여	211	1.87		
결혼 여부	기혼	64	2.09	1.70	0.094
	미혼	325	1.83		
연령	10대	125	1.94	6.96	0.001**
	20대	144	1.65		
	30대	120	2.08		
전체	389	1.88	0.99		

*by t-test or one-way ANOVA test at **p<0,01

표 5. 교정치료 의향 여부

구분	예	아니오	계	$\chi^2(df)$	p
성별	남	52(29.2)	126(70.8)	20.05(1)	0.000***
	여	109(51.7)	102(48.3)		
결혼 여부	기혼	23(35.9)	41(64.1)	0.94(1)	0.333
	미혼	138(42.5)	187(57.5)		
연령	10대	71(56.8)	54(43.2)	18.09(2)	0.000***
	20대	50(34.7)	94(65.3)		
	30대	40(33.3)	80(66.7)		
계	161(41.4)	228(58.6)	389(100.0)		

*by Chi-square test at *** $p < 0.001$

표 6. 교정치료 의향에 대한 이유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빠져버린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고 싶어서	85	52.8
치아 사이의 벌어진 틈을 가지런히 하고 싶어서	17	10.6
튀어나온 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21	13.0
튀어나온 턱/나온 턱(합죽이)을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7	4.3
치아의 개수가 부족해서	2	1.2
덧니가 나와서	12	7.5
안모 개선을 위해(심미적 목적)	17	10.6
이를 해 넣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	-
계	161	100.0

표 7.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 수준

구분	MEAN	SD
치아가 가지런해진다	4.39	0.93
치아가 하얗게 된다	2.78	1.13
안모/외모에 본인의 자신감이 생긴다	4.16	0.97
발음이 개선된다(정확한 발음)	3.72	0.99
얼굴이 아름다워진다(심미성 증진)	3.93	0.96
치아우식증을 예방한다	3.11	0.98
치주질환을 예방한다	3.09	1.02
치과 치료비가 적게 든다	2.54	1.18
음식물/저작기능이 개선된다	3.53	1.00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	3.47	0.57

3.6. 교정치료의 긍·부정적 효과

3.6.1.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 수준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일반인은 ‘치아가 가지런해진다’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치과 치료비가 적게 든다’에 대해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다<표 7>.

3.6.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3.47로 일반인은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표 8>.

3.6.3. 교정치료의 부정적 효과 수준

교정치료의 부정적 효과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일반인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턱관절에 장애가 생긴다’에 대해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다<표 9>.

3.6.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아교정 부정적 효과

교정치료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3.09로 일반인은 교정치료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았으며, 성별과 결혼 여부, 연령, 그리고 교정치료 경험 여부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0>.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

구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178	3.39	-2.74	0.007**
	여	211	3.54		
결혼 여부	기혼	64	3.49	0.25	0.805
	미혼	325	3.47		
연령	10대	125	3.40	2.42	0.090
	20대	144	3.46		
	30대	120	3.56		
전체	389	3.47	0.57		

*by t-test or one-way ANOVA test at ** $p < 0.01$

표 9. 치아교정의 부정적 효과 수준

구분	MEAN	SD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4.40	0.90
치아우식증이 생긴다	2.79	0.89
치주질환이 생긴다(잇몸염증)	2.78	0.94
턱관절에 장애가 생긴다	2.64	0.97
발음이 부정확해진다	2.71	1.06
안모/얼굴이 달라진다	3.31	1.07
교정 후에도 재발된다(기존/중전상태로 돌아감)	3.02	1.07
식사를 하기 힘들다	3.11	1.17
교정치료의 부정적 효과	3.09	0.56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정치료의 부정적 효과

구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178	3.05	-1.37	0.172
	여	211	3.13		
결혼 여부	기혼	64	3.02	-1.15	0.250
	미혼	325	3.11		
연령	10대	125	3.18	2.16	0.117
	20대	144	3.04		
	30대	120	3.08		
전체	389	3.09	0.56		

*by t-test or one-way ANOVA test

4. 총괄 및 고안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경제적 발전이 거듭되고 교통과 통신망이 발전되어 자신의 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치과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부정교합을 가진 일반인의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치료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필수적 요건이라 볼 수 있다⁴⁾. 한편 이 등¹⁶⁾의 연구에서는 보다 좋은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교합 상태 및 교정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는데 현재의 교정치료는 단순히 고르지 않은 치아와 부정교합을 정상교합상태로 개선하는 치열교정치료의 차원에서 벗어나 안모의 심미성을 추구하는 악안면 성형수술의 범위의 영역으로 점차 영역이 확대해 나가는 실정이다. 경제적 인식, 국민들의 인식, 문화적 특성이나 특정시대의 부정교합에 대한 인식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¹⁷⁾는 교정치료를 원하는 이들의 치료 우선순위와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치료에 이용한다면 치료의 만족도 및 환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결과적으로 치료의 질이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인의 본인인지 치아상태의 만족도와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지식수준·인식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교정치료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일반인의 교정치료에 대한 인지 여부에

서는 성별로 여자가 남자보다 교정치료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고($p < 0.05$), 교정치료의 의향 여부에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교정치료를 받고 싶은 의향이 높았다($p < 0.001$).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교정치료를 받기 원하며¹⁶⁾ 치료의 열망이 높다는 연구결과¹⁸⁾를 참조하여 볼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이 외모나 미적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이나 관심도가 높고 교정치료가 안모의 개선·외모의 심미성 향상에 관계가 깊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임 등⁴⁾의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교정환자의 비율 중 1970·1980년대와 1990년대를 비교 시 여자 보다 남자 환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고 하며 미에 대한 관심도가 여자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높아졌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남자 29.2% 정도가 교정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여 점차 남성들도 외모에 대한 관심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남녀 간의 심미적 안모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Rebeka 등의 연구¹⁸⁾에서 교정치료 욕구는 10대 중반에 이르러 최고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연령이 적을수록 교정치료 받을 의향이 높았다($p < 0.001$). 10대의 경우 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또래 집단과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20·30대에 비하여 많은 편이고 한창 외모와 안모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 시기라 이러한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인의 치아모양·배열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1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치아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음($p < 0.05$)을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기 치아의 외모에 대한 불만은 자신감 결여나 자신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사회성 결여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정치료로 외모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치아 자체의 모양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교합으로 인한 안모의 개선과 치아의 기능 향상을 시키기 위한 것⁶⁾이므로 교정치료에 대한 올바른 역학적 치료지식을 10대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시기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일반인의 치아 모양·배열의 만족도에서는 평균이 3.11점으로 자신의 치아 상태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고 저작 시 본인 치아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연령별에서 30대 연령이 저작과 관련하여 치아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p < 0.01$). 30대에 접어들면서 저작효율성이 떨어지고 치아 마모 및 교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교합 문제가 생김으로 잇몸질환 및 기타 구강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교합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정상 교합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부정교합을 가진 일반인의 경우 장기적으로 구강에 좋지 않은 예후를 미칠 수 있으므로 교정학적인 측면에서의 올바른 구강건강지식 및 교육이 홍보되어야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생각된다. 일반인의 교정치료 의향에 대한 이유에서는 ‘빠져 들어간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고 싶어 교정치료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52.8%, ‘튀어나온 입을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가 13%, ‘치아 사이 벌어진 틈을 좁힘 및 안모개선을 위해서’가 10.6%로 나타났는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신체의 외모가 중요시되고 치아의 배열이 첫인상을 좌우한다¹⁹⁾는 연구를 참고하여 볼 때 일반인들에게 점차 교합·기능과 관련한 부정교합 개선보다는 안모의 개선을 고려하는 교정치료의 의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정의사나 교정치과분야에서는 능동적으로 환자가 교정치료를 원할 시 치아의 정상교합과 배열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해당 환자의 외모와 안모의 관계

를 심사숙고하여 고려해야 될 것이라 사료된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대중매체나 광고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유명 일부 연예인들의 교정치료나 치아 교정 관련 성형 수술 후 개선된 안모의 모습 사례보도는 일반인에게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모적인 부분에 국한된 교정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려된다. 교정치료를 무분별하게 선택하거나 수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언론기관이나 치과병·의원의 지나친 상업적 의료광고나 과장 보도 등이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인은 교정치료에 대한 긍·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는 낮았으나 성별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교정치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p < 0.05$) 교정치료 목적과 기대치가 남자에 비하여 높고 교정치료 후 심미적 치료 경향과 욕구가 여자가 높다는 이와 고²⁰⁾의 연구결과와 부합하여 볼 때 여자의 교정치료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정의사와 관련 의료진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자환자의 교정치료 시 만족도 유지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환자응대 방안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일반인만 조사하였으므로 전체의 인구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전국 지역의 일반인을 대표하는 표본을 모집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상자의 부정교합 상태·구강검사 결과와 교정치료에 대한 주관적 인식조사를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최근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교정치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교정치료의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임상영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 또한 교정치료 교육 시 교정치료 대상자의 심리나 욕구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일반인의 안모 개선과 심미성을 위한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이 인지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치료계획의 수립 및 치과 교정영역의 올바른 홍보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정치료와 심미적 영향이 관계가 깊음을 인지하고 이 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반인의 본인 인지 치아상태 만족도, 교정치료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아교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임상영역에서의 교정치료 발전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교정치료에 대한 인지정도에서는 성별로 여자가 남자보다 교정치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2. 본인의 치아의 모양, 배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10대의 만족도가 낮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3. 저작 시 본인의 치아사용에 대한 불편함 정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연령별로 30대가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꼈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4. 교정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치료받을 의향이 높았으며 ($p < 0.001$) 연령이 낮을수록 치료받을 의향이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5. 치아교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결과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치아교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상 같은 결과를 토대로 치과 임상에서는 일반인의 교정치료 상담 및 교정환자의 치료 시 연령과 성별의 차이에 따라 교정치료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인지하고 교정치료의 치료 내용이나 치료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교정치료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이금룡. 외모가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998;11:1-18.
2. Dion, KK, Berscheid E, Walster E. What is beautiful is good. j persoc. Psychol 1972; 24:285.
3. 임소연. 미용성형수술 일반인과 일반인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석사학위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2001.
4. 임동혁, 김태우, 남동석, 장영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 내원한 부정교합 환자의 최근경향. 대한치과교정학회지 2003;33(1):63-72.
5. 박영남, 이미라.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과 구강건강영향지수(OHI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10(3):513-522.
6. 남동석, 장영일, 백형선, 박영철. 치과 교정학. 제3판. 서울:나래출판사;2000:158-637.
7. 전국 치과대학 교정학 교수협의회. 치과 교정학. 서울:지성출판사;1999:310-311.
8. 정민호. 부정교합과 교정치료가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치과교정학회지 2007;37(1): 56-64.
9. 이신재, 서정훈. 7~18세 청소년의 부정교합에 대한 인식과 교정치료 수요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교정학회지 1994;24(2):367-394.
10. 김영호. 교정환자의 태도에 관한 고찰. 대한치과 의사협회지 1993;31:383-392.
11. 정승연, 안형식, 김숙향, 장종화, 박용덕. 병원유형별 치아교정일반인의 병원선택요인 및 만족도 비교.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29(4):516-526.
12. 강혜경, 유영규. 1991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정교합 빈도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교정학회지 1992;22:691-701.
13. 이신재, 김태우, 서정훈. 부정교합과 교정치료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치과교정학회지 1994;24:193-198.
14. 남정란, 최재홍, 김무영, 성진호. 치열교정일반인의 진료인식에 관한 조사. 구강생물학연구 -조선대학교 구강생물학회지 2003;27(2):17-35.
15. 이가연, 전진호. 치열교정 치료 일반인의 특성과 기초 진단 후 단기간 내 치료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9;33(3):411-421.
16. 이원유, 김영돈, 한부석. 교정과 부정교합에 대한

지식에 관한 조사. 대한치과교정학회지 1992;22(4): 815-822.

17. Tulloch JF, Shaw WC, Underhill C, et al. A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s orthodontic treatment in British and American communities. Am J Orthod 1984;85:253-259.
18. Rebeka G, Sliva, David S, Kang. Prevalence of malocclusion among Latino Adolescents. Am J Orthod Dentofac Orthop 2001;119:313-315.
19. 윤영숙, 정영희. 치아교정장치의 신체상 및 자기 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2004; 4(1)81-92.
20. 이가연, 고은정. 치열교정치료시 교정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위생과학회지 2010; 10(2):85-94.